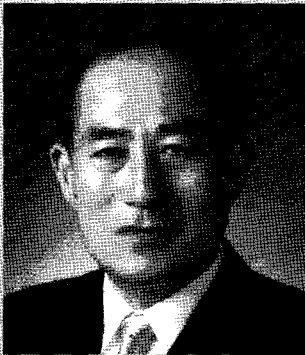


#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 개발 주력 밀폐용기 '바이오킵스', 디자인 노벨상 수상



구 자 일  
코멕스산업 대표

“세계적 권위의 상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하고도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상이라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는 상인지 잘 느끼지 못했으나 해외로부터 수출상담이 밀려들면서 새삼 그 위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생활용품 제조업체인 코멕스산업(대표 구자일)이 지난 해 내놓은 밀폐용기 바이오킵스가 국내 중소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유럽 디자인 공모전 독일 '2004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했다.

'디자인 노벨상'이라 불리는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디자인센터가 1955년 이래 매년 개최하고 있는 국제 디자인 공모전으로 시장에 출시된 2년 미만의 제품을 대상으로 심사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 국내에서는 코멕스산업과 함께 LG전자 에어컨이 함께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코멕스산업의 총지휘자인 구자일 대표는 “일반 밀폐용기와 달리 바이오킵스 용기는 식품을 용기 안에 보관하는 기간이 일반 용기보다 1주일 이상 가는 등 개발당시부터 기존의 밀폐용기와는 확실히 구별되는 바이오 기능으로 건강까지 생각하는 '웰빙 용기'”라고 제품을 소개했다.

바이오킵스는 실리콘 패키징으로 밀폐성을 유지함으로써 기존의 밀폐용기가 뚜껑과 몸체가 맞물리도록 홈이 파여 있어 세균이 쉽게 번식하고 세척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했다.

또한 잠금장치도 용기와 일체형으로 디자인해 수납성을 높이는 등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개발했다.

생활에 편리한 디자인, 친환경적인 제품생산을 통해 소비자

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생산에 중점을 둔다는 구자일 사장은 제약업계의 영업맨으로 종사하던 지난 71년 당시 약국에서 판매되던 젓병의 품질이 너무 떨어진다고 느껴 아무도 흉내 낼 수 없는 젓병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오로지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겠다”는 신념 아래 구 사장은 밀폐용기, 물병, 쓰레기통 등으로 품목을 다양화해 식수 전용 물통인 바이오탱크, 코맥스 향균고무장갑 등을 개발하며 고객만족을 꾀하고 있다.

“30년 넘게 한우물만을 파온 코맥스산업은 고품질 차별화를 위해 신소재, 특수 MOLD, 신기술 도입, 독창적 디자인 등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엄격한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 사장의 이와 같은 남다른 열정과 노력으로 코맥스 산업은 지난 95년 노동부 장관상, 통산산업부 장관 표창, 산자부 장관 표창 등을 수상했으며 최근에는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뿐만 아니라 마케팅 대상 신상품 부문 명품상, 한국소비자의 신뢰기업 대상 등 무수한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다.

코맥스산업은 독자 기술로 모든 제품을 개발해 의장등록을 마친 상태로 국내 관련업체 중 최다품목을 갖고 있는 이 분야의 선도 기업이다.

구자일 사장은 인체에 전혀 무해하고 검증된 원료만 쓰고 있음에도 플라스틱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 때문에 플라스틱 제품의 장점이 소비자에게 잘 전달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그는 “코맥스는 인체에 해로운 플라스틱을 사



▲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한 바이오킵스'

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제조공정도 매우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다”며 “특히 신소재와 신기술을 도입한 특수 몰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엄격한 품질관리를 기본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플라스틱이 안전하다는 것을 관련 업체나 기관이 앞장서서 제품 자체에 대한 안정성을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5년 이상 연구하여 개발한 신기능성 밀폐용기 바이오킵스를 세계적 브랜드로 성장시키는데 주력할 것이라는 구 사장은 “2005년까지 매출 1천억원을 달성하여 국내 최대 생활용품 전문 기업으로 우뚝 서도록 매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건강과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고객의 기업으로서 소비자에게 다가가겠다는 구자일 사장의 바람처럼 코맥스산업은 앞으로도 고객에 진심으로 필요로 하는 주방 생활용품 개발에 앞장설 것이다. ☐

이한얼 기자